

2019 서순실 심방 본풀이 채록

초공본풀이

초공본풀이>들어가는 말미

초공 임정국 삼시당 하나님~, 난산국에 본을 풀져 험네다~. 성은 서씨로 신축생(辛丑生)입네다. 연주단발(剪爪斷髮) 신영백무(身嬰白茆) 은진무를 제비 꿀렸습네다. 난산국에 본을 풀건 제노립서예~.1)

성진(姓親) 땅은 황금산(黃金山)~ 주접선성(朱子先生)님, 웨진(外親) 땅은 천하(天下) 임정국 데감, 지에(地下) 내려 짐진국 부인님, 이 산 압은²⁾ 발이 번고, 저 산 압은 줄이 번어, 왕데 월산 금하늘~ 노가단풍즈지명왕아기씨, 원구월 초여드레(初八日) 본명두, 신구월 여레드레(十八日) 신명두, 삼구월 스물으드레(二十八日) 살아살축 삼명두, 젓부기 삼형제, 남천문밖 유정싱(柳政丞) 뜨님아기 초공은 신불리로³⁾ 난산국입네다예~.4)

초공본풀이>본풀이

옛날 옛적 천하 임정국 데감님 샅데다. 지에 내려 짐진국 부인님이 샅읍데다. 남당법당 유기전답(鎡器田畝) 좋읍데다. 네 귀에 풍경(風磬) 들런 동풍(東風)이 불민 서풍이 왕강신강, 서풍(西風)이 불민 동풍이 왕강신강, 늦인덕 정하님 거느리어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 잘 살아나난, 이십스물, 삼십서른 넘어도 남녀간에 아기 엇언⁵⁾ 호오탄복(後悔歎服) 허십데다.

흐를날은 임정국이 데감님, 삼천선비 일만선비 바둑 장게 노념놀이 허난, 그 바둑 장게 다따난 걸추(傑出)헌 선비가 곤는⁶⁾ 말이,

“임정국 데감님아, 아기 엇인 돈을 경⁷⁾ 땅⁸⁾ 강⁹⁾ 뭐 혈 거뀐?”¹⁰⁾

영 허난, 임정국 데감님 두던 바둑 장게 두어 된 네령 오랏구나.

오단 보난 높은 낭에¹¹⁾ 세 짐승이¹²⁾ 세끼 꺾완 먹이 물어단 오조조 일럼구나.

‘나도 뭘 못헌 세¹³⁾ 가막세도¹⁴⁾ 세끼 낭 오조조 일럼구나.’

네령오단 보난 황천데국(仰天大笑) 웃음소리가 낫구나. 간 보난 피조리 초막살이¹⁵⁾ 돌쩌귀 거적문¹⁶⁾ 들안¹⁷⁾ 얻어먹는 계와시덜¹⁸⁾ 사는 집이로구나. 창꼬냥¹⁹⁾ 뜰란²⁰⁾ 쏘안 보난, 아방

1) 노립서예: 내립서.

2) 압은: 앞은.

3) 신불리로: 신의 뿌리로.

4) 난산국입네다예: 본디 태어난 곳과 그 내력입니다.

5) 엇언: 없어서.

6) 곤는: 말하는.

7) 경: 그렇게.

8) 땅: 따서.

9) 강: 가서.

10) 뭐 혈 거뀐: 무엇을 할 것입니까.

11) 낭에: 나무에.

12) 세 짐승이: 새 짐승이.

13) 세: 새.

14) 가막세도: 까마귀도.

15) 피조리 초막살이: 아주 형편이 안 되게 얹어서 지은 초막(草幕)살이.

16) 거적문: 문짝 대신에 거적을 친 문.

앞이 잇인²¹⁾ 애기 어멍안티 가민 황천데국(仰天大笑) 웃음 웃고, 어멍안티 잇인 애기 아방안티 가난 황천데국(仰天大笑) 웃음 웃엄구나.

‘날만 못헌 얻어먹는 게와시도 아이 세끼 하나 난 웃엄구나. 나도 집이 가민 웃을 일 잇일 테주.’

임정국 데감님 집더레 내려오십데다예~. 내려오난~ 늦인덕 정하님은 안상노기(安城鑰器) 도 용칠반상(統營漆飯床)을 출런²²⁾ 들어간,

“상전님아 밥 먹읍서.”

밥을 아니 먹으난 짐진국 부인님이,

“이 밥 먹읍서. 웃을 일이 잇입네다.”

그 밥을 먹엇구나. 앞데자를 열어 논다. 은단팽(銀丹瓶)에 서단마게²³⁾ 막앗구나. 소라만단지, 능화도비(菱羅塗壁), 각진장판(角壯壯版)에 둥그려도 웃음이 아니 나오랏구나예~.

동계남(東觀音)은 은중절, 서계남(西觀音)은 상세절, 남계남(南觀音)은 녹농절, 북하산은 미양안동절 푼처²⁴⁾ 지컨 데서(大師)님 하늘 7른²⁵⁾ 굴송낙(-松絡), 지에 7른 굴장삼(-長衫), 아강베포, 직부잘리,²⁶⁾ 호름준치,²⁷⁾ 백파염줄(百八念珠) 목에 걸고 금주랑 철쪽데를²⁸⁾ 지편²⁹⁾ 금세상(今世上)에 권제(勸齋) 받으레 네립네다.

동으로 들언 서으로 나고, 서으로 들언 동으로 나고~, 뒤로³⁰⁾ 받을 떤 흙으로 받으멍, 권제를 받았구나. 주년국 땅 네령 임정국 데감, 김진 짐진국 부인님 사는 집 알더레³¹⁾ 도느리며,³²⁾

“소승은 절이 뵈네다.”

“어느 절당에 데섭네까?”

“동계남에 은중절에 살암수다. 서계남은 상세절 남계남은 녹농절, 북하산 미양안동절에 사암네까?”

“어찌하여 이곳을 네립네까?”

“권제를 받으레 네렸우다. 권제를 받아단 헌 당(堂), 헌 절을 수리허고 멩(命) 없는 이 멩을 주저. 복(福) 없는 이 복을 주저. 생불(生佛) 없는 즈순은 생불을 주저.”

권제를 받으레 네렸우덴 허난, 임정국 데감 짐진국 부인님 높이 들러 낮이 스프르,

“헌 방울이 떨어지민 멩도 떨어질 듯 험네다. 복도 떨어질 듯 험네다.”

권제를 네어 주난 데서님은 나고 가난, 임정국 데감 짐진국 부인님 곧는³³⁾ 말이,

17) 들안: 달아서.

18) 게와시덜: 거지들.

19) 창꼬냥: 창구멍.

20) 푼란: 뚫어서.

21) 잇인: 있는.

22) 출런: 차려서.

23) 서단마게: 마개. ‘서단’은 앞의 ‘은단’에 맞춘 조운(調韻).

24) 푼처: 부처.

25) 7른: 가린.

26) 아강베포 직부잘리: 종이 들고 다니는 자루.

27) 호름준치: 종이 들고 다니는 자루.

28) 철쪽데를: 죽장(竹杖) 지팡이.

29) 지편: 짚어서.

30) 뒤로: 되로.

31) 알더레: 아래로.

32) 도느리며: 내리며. ‘도’는 조운(調韻).

33) 곧는: 말하는.

“데서님아, 우리 부베간³⁴⁾ 원천강(袁天綱) 스주팔저(四柱八字) 고남³⁵⁾ 헤여봅서. 원천강 스주팔저에 아기 엇영 무유유화(無爲而化) 허렌 현 팔저파? 아니민 영급(靈給) 좋은 법당에 강³⁶⁾ 불공 드려 애기 잇일 팔저펜?”

영 허난. 단수육갑(單數六甲) 지퍼간다. 오용팔관(五行八卦) 지퍼건 곤는 말이,

“임정국 데감님, 짐진국 부인님아, 아기 엇영 무유유화허렌 현 팔전 아닙네다. 영급 좋은 법당에 강 불공 드려 봅서. 아기가 잇을 듯 험니덴.”

헤연, 데서님은 권제를 반양 절간 법당(法堂)더레 소곡소곡³⁷⁾ 올라가십데다예~.

임정국 데감 짐진국 부인님 강모디는³⁸⁾ 강나룩, 수답(水畚)이는 수나룩, 모답이는 모나룩을 심엇구나. 상백미(上白米), 중백미(仲白米), 웨백미(下白米) 착쓸 엇이³⁹⁾ 출려 간다. 가삿베(袈裟-)도 구만 장, 송낙베(松絡-)도 구만 장, 드리베도 구만 장, 물맹지,⁴⁰⁾ 강맹지(-明紬), 세양페, 세미녕,⁴¹⁾ 고리비단,⁴²⁾ 한비단, 능화도비(菱羅塗壁) 가문 암췌⁴³⁾ 마바루에 바리바리 실러트구나. 금마답에⁴⁴⁾ 수리 두고,⁴⁵⁾ 올레에 막음 두고, 첩첩삼중(疊疊山中)더레 소곡소곡 올라가십데다예~.

가단 보난 싱근 돌에,⁴⁶⁾ 물팡돌에⁴⁷⁾ 잇엇구나. 쉬언 잇이난 법당 안네서 데서님이 속 하인 불러 간다.

“네눈이반동계가⁴⁸⁾ 양반은 보민 네 발을 주꾸고,⁴⁹⁾ 중인 보민 두 발을 들렁 주꾸고, 하인을 보민 누웁 주꾸는 네눈이반동계가 드리쿵쿵 네쿵쿵 주팸구나. 먼 올레 나고 보라. 어느 양반 잇 텍에서 오랏이니?”

소사중은 먼 올레 나고 보난, 싱근 돌에 물팡돌이로구나.

“소승은 절이 뻬네다. 어느 양반잇 텍에서 불공을 읍데가?”

“너히에 절간 법당에 영급이 좋덴 헤연, 불공을 오랏구나.”

“안드로 들어옵서.”

안드로 들어간다. 갖영 간 거 은분체에⁵⁰⁾ 도금⁵¹⁾ 물려 놓고, 상탕(上湯)에 메를 짓고, 중탕(中湯)에 모욕(沐浴)허고, 하탕(下湯)에 수족(手足) 씻천 돌아올 췌 월광(月光)님도 사나사나, 지어갈 췌 일광(日光)님도 사나사나, 중천비단 당돌님 세양상 받안 읍던 옥계천신 일월님도 사나사나, 백일(白日) 불공(佛供)을 드렸구나. 백일제 뻬는 날이난 데서님이 나오랏구나.

“임정국 데감님아, 짐진국이 부인님아, 오늘은 백일제가 뻬엇우다. 꼬까막 은저올데⁵²⁾ 저우

34) 부베간: 부부.

35) 고남: 사주팔자 따위를 가늠하다.

36) 강: 가서.

37) 소곡소곡: 거침없이 앞으로 걸어가는 모양.

38) 강모디는: 강답(-畚)은. 건답(乾畚) 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곧 마르는 논.

39) 착쓸 엇이: 쪼개진 쌀알 없이.

40) 물맹지: 물명주(-明紬). 얇은 남빛 명주실로 짠 피륙.

41) 세미녕: 무명.

42) 고리비단: 고리 무늬 비단.

43) 가문 암췌: 검은 암소.

44) 금마답에: 마당에.

45) 수리 두고: 잠가서 봉한 표지를 하고. 흔히 ‘감봉수레 하고’라고 말함.

46) 싱근 돌에: 심은 돌에.

47) 물팡돌에: 하마석(下馬石)에.

48) 네눈이반동계가: 두 눈에 반점이 있어 네 눈이 달린 것처럼 보이는 개가.

49) 주꾸고: 짓고.

50) 은분체에: 은부처에.

51) 도금: 돈(錢)과 금(金).

리영 백 근이 차면은 아들이 나고, 백 근이 못 차민 여즈식이⁵³⁾ 날 듯 허십네다.”

꼬까막 은저울데로 저우리난 백 근이 못 찾구나.

“출령 온 거 하영 출령 오라도 정성이 백 근이 못 차난, 여즈식이 날 듯 험네다. 내려가건 합궁일(合宮日)을 반안 천상배필(天上配匹) 무어⁵⁴⁾ 봅서. 여즈식이 날 듯 허십네다.”

이 말을 들으난, 폰처님전 절 삼배(三拜) 올려두고, 금마답에 수리 두고, 올레에 막음을 두 언 첩첩산중(疊疊山中) 네령오라 간다.

네려오단 보난 헤는 열락서산(日落西山)에 다 지엇구나. 이 밤, 저 밤, 야사생경, 깊은 밤이 어욱폐기⁵⁵⁾ 으지혜연⁵⁶⁾ 무정눈에⁵⁷⁾ 즘을⁵⁸⁾ 자난, 꿈에 선몽(現夢)이 뒤엇구나.⁵⁹⁾ 앞이명엔 헤 님이여. 뒷이명엔 돌님이여. 양단 어깨 금산세별 벳힌 듯 아기씨로구나. 물알에⁶⁰⁾ 옥돌 7 뜬⁶¹⁾ 아기씨로구나. 가마귀 젓늘게⁶²⁾ 7 뜬 아기씨가 쿡안터레⁶³⁾ 들어오랏구나. 일어남 보난 꿈이로구나.

나가건 해몽산에 간 해몽(解夢)을 헤엇구나. 집이 오란 합궁일(合宮日)을 받았구나. 부베간에 천상배필(天上配匹)을 무우난에 석 돌 열흘 백일이 당허난, 짐진국이 부인님이 전에 먹던 밥도 아니고, 전에 먹던 장도 아니고, 물도 아니로구나.

“늦인덕이 정하님아, 어평허난 밥에는 골네가⁶⁴⁾ 나고, 장에는 장칼네가⁶⁵⁾ 나고, 물에는 펄네가⁶⁶⁾ 나고, 입던 옷엔 뚝네가⁶⁷⁾ 나암구나.”⁶⁸⁾

일곱여덱, 아홉열 둘이⁶⁹⁾ 당헤엇구나. 아기씨가 나압데다.⁷⁰⁾

“늦인덕 정하님, 먼 올레 나고 보라. 떼는 어느 떼고?”

늦인덕이 나간 먼 올레 나산,⁷¹⁾ 저 산터레 보난 구시월이 단풍이 지엇구나.

“상전님아, 상전님아, 구시월 단풍이 지엇우다.”

이 아기랑 이 산 압은⁷²⁾ 발이 번고, 저 산 압은 줄이 번고, 왕데 월산 금하늘로 노가단풍즈 지명왕아기씨로 이름을 지와간다.

훈 두 설은⁷³⁾ 넘어간다. 예시일곱 설 넘어간다. 상다락에 노념헌다. 중다락에 노념헌다. 하

52) 꼬까막 은저울데: 까마귀 주둥이 같은 갈퀴에 달아매도록 만들어진 은저울(銀衡) 대추나무로 만들어 졌다고 함.

53) 여즈식이: 여자식이.

54) 무어: 땀어.

55) 어욱폐기: 억새포기.

56) 으지혜연: 의지하여서.

57) 무정눈에: 무정하게 감긴 눈에.

58) 즘을: 잠을.

59) 뒤엇구나: 되었구나.

60) 물알에: 물아래.

61) 옥돌 7 뜬: 옥돌 같은.

62) 젓늘게: 날개.

63) 쿡안터레: 품안에.

64) 골네가: 군내가. 본래의 맛이 변하여 나는 좋지 않은 냄새가.

65) 장칼네가: 묵은 장에서 나는 냄새가.

66) 펄네가: 물비린내가.

67) 뚝네가: 땀 냄새가.

68) 나암구나: 나는구나.

69) 둘이: 달(月)이.

70) 나압데다: 태어났습니다.

71) 나산: 나가서.

72) 압은: 앞은.

73) 설은: 살(歲)은.

다락에 노념한다. 열다섯 십오세 왕구녁이 차앗구나.⁷⁴⁾

‘천하 임정국 데감님, 천하 베실⁷⁵⁾ 살레옵서. 지에 네려 짐진국이 부인님, 지에 베실 살레옵서.’

팬지(便紙) 답장(答狀)이 오랏구나. 부베간이 탄복(歎服)을 허십데다.

“아덜이나 ㄱ뜨민⁷⁶⁾ 책실(冊實)로나 데령 갈 꺼 여즈식이라 어떻허민 좋고? 늦인덕 정하님 아, 우리덜 천하 베실, 지하 베실 살레강 오쿠메, 우리덜 강 올 동안 아기씨 궁 안네에 밥을 주고, 옷을 주고, 키와주민 우리덜 천하 베실, 지하 베실 살앙 오민 종반역⁷⁷⁾ 시겨주켤.”

허난.

“기영 험서.”⁷⁸⁾

아기씨 궁 안네 놓앗구나. 마흔으둑 모람장, 서른으둑 백굴장, 스물으둑 고무살장,⁷⁹⁾ 아방 증근⁸⁰⁾ 열쇄 어멍 갖영 간다. 어멍 증근 열쇄 아방 갖영 간다. 상거심 조심통쇄⁸¹⁾ 놓아두고 천하 베실, 지하 베실 올라가십데다에~.

황금산(黃金山)이로구나. 삼천선비, 일만선비 바둑 장계 노념놀이 허단 걸추(傑出)헌 선비가 곧는 말이,

“일출동경(日出東嶺)에 두둥실 떠엇구나. 저 둘은 잘도 곱다.”

황금산 주접선성(朱子先生)님 곧는 말이,

“저 둘은⁸²⁾ 곱기는 고와도, 가지 계수나무 박힌 듯 허십네다. 저 둘보다 더 고운 아기씨가 금세상에 커엄수덴.”⁸³⁾

허난,

“본메 본짱⁸⁴⁾ 갖영 오겏느냐?”

“갖영 오쿠덴.”

허난, 주접선성님은 하늘 ㄱ른⁸⁵⁾ 굴송낙, 지에 ㄱ른 굴장삼,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름준치, 백파염줄(百八念珠) 목에 걸고, 손에 단줄(短珠)을 심고, 하늘 ㄱ른 금주랑 철쭉데를 지평 촌촌(村村), 각리각리(各里各里) 동으로 들언 서으로 나고, 서으로 들언 동으로 나고, 뒤로⁸⁶⁾ 받을 떤 흙으로 반안 권제(勸齋)를 받으멍 임정국 데감, 짐진국 부인 사는 디 먼 올레 오란,

“소승은 절이 뵙니다.”

“아이고 늦인덕이 정하님아, 먼 올레 나고 보라. 아바님이 오는가? 어머님이 오는가? 워낭 소리가 나암구나.”

늦인덕 정하님 먼 올레 나고 보란, 하늘과 ㄱ뜩헌⁸⁷⁾ 관장이 잇구나. 안네 가건,

74) 왕구녁 차앗구나: 혼인을 할 나이가 다 되었구나.

75) 베실: 벼슬.

76) ㄱ뜨민: 같으면.

77) 종반역: 종의 신분을 벗김.

78) 기영 험서: 그렇게 하십시오.

79) 마흔으둑 모람장 서른으둑 백굴장 스물으둑 고무살장: 기메의 하나인 ‘살장’을 다양하게 부르는 명칭임.

80) 증근: 잠근.

81) 상거심 조심통쇄: 큰 빗장으로 채우는 자물쇠.

82) 둘은: 달(月)은.

83) 커엄수덴: 크고 있다고.

84) 본메 본짱: 증거가 되는 사물.

85) ㄱ른: 가리는.

86) 뒤로: 되로.

87) ㄱ뜩헌: 가득한.

“상전님아, 큰상전님은 아니 오고, 하늘과 7뜯헌 데서님이 오랏우다.”

“말문이나 들어보았느냐?”

“아니 들어보았우다.”

“강⁸⁸⁾ 말문이나 들어방 오렌.”

허난, 먼 올레 나간,

“소승은 절이 뵈네다.”

“어느 절당에서 읍데가?”

“동계남은 은중절, 서계남은 상세절, 남계남은 녹농절, 북하산은 미양안동절 폰쳐 지컨 데서 남이고, 우리 법당에 당도 파락(破落)이 뵈고,⁸⁹⁾ 절도 파락이 뵈언⁹⁰⁾ 권제를 받아단 현 당, 현 절 수리(修理)허져. 우리 법당에 오랑 불공 드런 난 아기씨 노가단풍즈지맹왕아기씨가 금년 열 다섯 멍(命)도 부족헐 듯, 복(福)도 부족헐 듯 해연 권제 받으레 네럿습네다.”

안네 강 상전님한티 곱으난,⁹¹⁾

“난 문 안네 잇어부난 못 갈 꺼난 늦인덕이 정하님아, 나 데신 권제를 강 네어주렌.”

허난, 늦인덕 정하님,

“권제를 받으셴.”

나가난,

“늦인덕 정하님 뵈로 주는 거, 상전님 흡으로 주는 거 맞살⁹²⁾ 수가 엇우덴.”

허난, 안네 강 곱으난,

“강 곱으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 천하 베실, 지하 베실 살레 가명 문 증가동⁹³⁾ 가부 난 못 나가켜 곱으라.”

강 곱으난,

“상전님안티 강 들어봅서. 그 문을 올민⁹⁴⁾ 나올 수 잇우펜.”

허난, 강 곱으난,

“이 문만 올민 나가⁹⁵⁾ 나가지켤.”

허난, 황금산(黃金山) 주접선성(朱子先生)님은 하늘 옥항 도성문 열려옴던 금정옥술발 천양 낙훤⁹⁶⁾ 둘러 받안 흥번을 둘러 치난 천하가 요동(搖動)허고, 두 번을 둘러 치난 지하가 요동 허고, 삼세 번을 둘러 치난 마흔으둑 모람장, 서른으둑 백골장, 스물으둑 고무살장, 상거심 즈 심통췌 질로⁹⁷⁾ 절강허게 열어지난, 아기씨는 하나님이 볼 꺼가? 청너울을 둘러 씨고⁹⁸⁾ 지에 님이 볼 꺼가? 흑너울을 둘러 씨고,

‘아니 보던 중 얼굴이사 무사 뵈우리야.’⁹⁹⁾

백너울을 둘러 썬, 권제 받안 소곡소곡 먼 정에¹⁰⁰⁾ 나옴데다~.

88) 강: 가서.

89) 뵈고: 되고.

90) 뵈언: 되어서.

91) 곱으난: 말하니깐.

92) 맞살: 맞설.

93) 증가동: 잡가서.

94) 올민: 열면.

95) 나가: 내가.

96) 금정옥술발 천양낙훤: 요령(搖鈴).

97) 질로: 절로.

98) 씨고: 쓰고.

99) 뵈우리야: 보여주겠느냐.

100) 정에: 정남에 대문 대신 가로 걸쳐놓는 길고 굽직한 나무.

“데서님아, 훈착¹⁰¹⁾ 손은 어디 갓습네까?”

“훈착 손은 하늘 옥항에 단수육갑(單數六甲)을 지프레 갓습네다.”

“니 점괘랑 물었느냐? 나 점괘랑 물었느냐?”

“보점괘랑 물었우다. 높이 들러 낮이 스르르, 훈 방울이 떨어지민 멩도 떨어집네다. 복도 떨어집네다.”

권제를 높이 들러 낮이 스르르 비와 가난, 다 비와 가난 전뎛귀¹⁰²⁾ 잘락허게 놓아부난, 권제 쓸은 땅 알더래 다 떨어지엇구나. 은수저를 내어주멍,

“방울방울 좇어놉서. 훈 방울 떨어지민 멩도 떨어집네덴.”

헤연, 훈 방울씩 좇어 가난 난데엇는¹⁰³⁾ 손이 나오랏구나. 손으로 훈번, 두 번, 삼세 번을 머리 거시려¹⁰⁴⁾ 가니 줌막줌막¹⁰⁵⁾ 삼세 번을 노래난,¹⁰⁶⁾

“이 중, 저 중, 궤심헌 중, 양반이 집이 권제 못 받으레 뎅길 중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 알민 청뎛섭에¹⁰⁷⁾ 목 걸령 죽일 중아.”

“후욕(詬辱)막서. 노욕(累辱)막서. 석 둘 열흘 백일이 뉘어가민 나 생각에 무디무디¹⁰⁸⁾ 날 꺼우다. 그때라근 황금산 주점선성 철쭉데 ㄱ뎛¹⁰⁹⁾ 보멍 읍셴.”

허난,

“늦인덕이 정하님아, 저 중 굳는 말 피아곡절(必有曲折)허다. 장삼기도 끊어오라. 송낙기도 끊영 오라. 장삼기 송낙기 끊영 오난, 젓가심더래 콤영¹¹⁰⁾ 저 중안티 요문이나 더꺼동 가렌.”

허난, 하늘 옥항 도성문 올려 읍던 금정옥술발 천황낙훤 둘러 반안 훈번을 둘러 치난 천하가 요동(搖動)허고, 두 번을 둘러 치난 지하가 요동허고, 삼세 번을 둘러 치난 상거심 즈심통 쉼 질로 절강 증가지엇구나. 데서님은 권제를 받아근 절간 법당더래 소곡소곡 올라가십데다 예~.

올라가난 석 둘 열흘 백일 뉘어가난 전이 먹던 밥이 아니로구나.

“늦인덕이 정하님아, 어떻허난 먹던 밥에는 골네가¹¹¹⁾ 나고, 먹던 국에는 장칼네가 나고, 먹던 물에는 펄네가 나고, 입던 옷엔 뎛네가 남시니? 아이고 연드레도¹¹²⁾ 먹구져라.¹¹³⁾ 여미체(五味子)도 먹구져라.”

늦인덕 정하님 상전님 살리젠 송동바구니 옆에 끼연 굴미굴산 아야산을 신산곳을¹¹⁴⁾ 도올랏구나. 높은 낭에¹¹⁵⁾ 열메랑¹¹⁶⁾ 딸 수가 엇이난,

“멩천 ㄱ뎛¹¹⁷⁾ 하날님아, 모진 강풍(強風) 훈 주제만 불어 줍서. 높은 낭에 열메 떨어지민

101) 훈착: 한쪽.

102) 전뎛귀: 전대(纏帶) 끄트머리.

103) 난데엇는: 난데없는.

104) 거시려: 건드려.

105) 줌막줌막: 움찔움찔. 놀래는 모양.

106) 노래난: 놀래니깐.

107) 청뎛섭에: 푸른 대나무 가지에.

108) 무디무디: 마디마디.

109) ㄱ뎛: 금 또는 흔적.

110) 콤영: 품어서.

111) 골네가: 군내가. 본래의 맛이 변하여 나는 좋지 아니한 냄새가.

112) 연드레도: 연다래도.

113) 먹구져라: 먹고 싶어라.

114) 굴미굴산 아야산을 신산곳을: 깊고 깊은 산 속을.

115) 낭에: 나무에.

116) 열메랑: 열매를.

117) 멩천 ㄱ뎛: 멩천(明天) 같은.

쫓영 강 우리 상전님 맥연¹¹⁸) 살리쿠덴.”

허난, 모진 강풍이 혼 주제 부난 높은 낭 열매가 떨어지언 송동바구니에 쫓언 오란,

“상전님아, 상전님아, 요거 먹언 살아납서.”

먹어가난,

“남네¹¹⁹) 낭¹²⁰) 못 먹키어. 풀네¹²¹) 낭 못 먹키어.”

아홉열 돌은 나가난 눈은 곰박눈이¹²²) 뒤어지고, 코는 물똥코가 뒤어지고, 베는 두둥베가 뒤어두고, 발이 동동발 뒤어가난,

“아기씨 상전님 죽을 때가 뒤엇구나. 천하 임정국 데감님아, 천하 베실 삼 년 살 꺼 석 돌 에 므치고,¹²³) 석 돌 살 꺼 단 사흘에 므천¹²⁴) 읍서. 죽은상전님 죽을 때가 뒤엇우다. 지에 짐진국 부인님아, 지에 베실 삼 년 살 꺼 석 돌에, 석 돌 살 꺾 단 사흘에 므깡¹²⁵) 읍서. 죽은상전님 죽을 때가 뒤엇습네덴.”

허난,

“비릇 여식이주만은 우리가 불공 드런 낱안 애기로구나. 삼 년 베실 석 돌, 석 돌 베실 단 사흘 므깡 예~ 천하 베실, 지에 베실 므깡 내려오는 질입네다.”

아바님은 아바님 방더레 들어갓구나. 어머님은 어머니 방에 들어갓구나.

“늦인덕 정하님아, 아바님안테 신신문안(現身問安) 가져. 어떻허민 뒤코?”

“남부모에 여쭙식이난 은상식(銀裝飾)도 드리 놓서. 분상식(粉裝飾)도 드리 놓서. 헤거울, 돌 거울, 몸거울 놓서.”

다 놓앗구나. 풀 써근 치메¹²⁶) 입언 소곡소곡 걸언,

“아바님전 신신문안입네다.”

“아이고 나 똥애기야, 눈은 무사 곰박눈이?”

“아바님이 오는가? 어머님이 오는가? 멘날¹²⁷) 멘날 창꼬냥으로 눈을 쏘안 보난 곰박눈이 뒤엇우다.”

“코는 무사 물똥코가 뒤엇이니?”

“아바님이 오는가? 멘날 울단¹²⁸) 코 나오민 코 풀단 보난 물똥코가 뒤엇우다.”

“베는 무사 두둥베가 뒤엇이니?”

“늦인덕 정하님이 종반역¹²⁹) 시켜주켄 허난, 홉으로 허단 뒤¹³⁰) 삼식(三食) 헤부난, 베는 두둥베가 뒤엇우다.”

“발은 무사 동동발이 뒤엇이니?”

“아바님이 오는가? 메일 메일 발을 동글동글 구르단 보난 동동발이 뒤엇우다.”

118) 맥연: 먹여서.

119) 남네: 나무 냄새.

120) 낭: 나서.

121) 풀네: 풀냄새.

122) 곰박눈이: 곰박 같은 눈이. ‘곰박’은 국자 모양으로 만들되 우묵한 바닥에 구멍을 숭숭 뚫어서 물에 삶은 떡 따위를 건지는 데 쓰는 조리 기구.

123) 므치고: 마치고.

124) 므천: 마쳐서.

125) 므깡: 마쳐서.

126) 풀 써근 치메: 풀 먹인 치마.

127) 멘날: 매일.

128) 울단: 울다가.

129) 종반역: 종의 신분을 벗김.

130) 뒤: 되.

“아이고 나 똥애기 착허다. 어멍안티 가라.”
 “늦인덕 정하님아, 어멍안틴 어멍 가코?”
 “여부모에 여즈식 무신 탈이 잇입네까?”
 은상식 분상식 드리 아니 놓고, 풀 째 치메 입언 자직자직,
 “선신문안입네다예~.”
 “아이고 나 똥아, 눈은 무사 곰박눈이 똥이니? 코는 무사 똥코가 똥이니? 베는 무사 두둥
 베가 똥엇고? 발은 무사 동동발이 똥엇이니?”
 아방안티 곤는¹³¹⁾ 데로 그데로 ㄱ난,¹³²⁾
 “아이고 필아곡절(必有曲折)허다. 나도 헤 본 일이로구나.”
 젓가슴을 헤천 보난 핏줄이 사앗구나.
 “아이고 요년아, 저년아, 양반이 집이 스당(祠堂)공쟁이¹³³⁾ 나앗구나. 궁 안네도 브름이 들
 어서냐?”
 앞똥디랑 작두를 걸어간다. 똥똥디는 버텅을¹³⁴⁾ 걸어간다. 쯔각(刺客)놈을 불러다 놓고 아기
 씨 상전님 목에 큰칼을 씨앗구나. 늦인덕 정하님이 곤는 말이,
 “큰상전님아, 큰상전님아, 죽은상전님은 아똥 쥬도¹³⁵⁾ 엇우다. 날 죽입서. 나가 종이 심부름
 잘못헤엇우다.”
 아이고 경 허민 요년 죽이젠, 늦인덕 정하님 큰칼을 씨와가난, 아기씨 상전님 곤는 말이,
 “어머님아, 어머님아, 종이 무신 쥬파? 나가 상전으로 심부름 잘못 시킨 쥬가 나를 죽이렌.”
 허난,
 “이거 아니 똥로구나. 은데양을¹³⁶⁾ 갖영 오라.”
 은데양을 갖영 오난 물을 놓앗구나. 은젓가락을 놓안 베(腹) 안터레¹³⁷⁾ 보난 종이 애기가 삼
 형제가 잇구나.
 “이거 혼 목심¹³⁸⁾ 죽이젠 허단, 다섯 목심 죽여질로구나.”
 아방 눈에 골리난다.¹³⁹⁾ 어멍 눈에 골리난다.
 “흔저 나고가렌.”
 허난, 아바님안티 선신문안(現身問安) 간,
 “아바님아, 아바님아, 살암십서예~.”
 “나 똥아가야, 느네 어멍 허는 일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나 아기가, 가당 못 넘어갈 데랑
 금봉체¹⁴⁰⁾ 하나 주멍 요거 드리 놓안 넘어가렌.”
 허고 어머님한테 강,
 “어머님아 살암십서.”
 “아이고 혼 시도 똥기¹⁴¹⁾ 싫다. 나고가렌.”

131) 곤는: 말하는.

132) ㄱ난: 말하니.

133) 스당(祠堂)공쟁이: 양반의 집에 흉한 일이 생겼음을 뜻함.

134) 버텅을: 형들을.

135) 쥬도: 죄도.

136) 은데양을: 은대야를.

137) 안터레: 안에.

138) 목심: 목숨.

139) 눈에 골리난다: 눈 밖에 난다.

140) 금봉체: 금부채.

141) 똥기: 보기.

허난, 흰 설, 두 설, 열다섯 설? 지 입던 옷 가문 암쇄에 시켜 놓고, 늦인덕 정하님광 ㄱ
찌¹⁴²⁾ 먼 올레 나산 가단 보난 산에 불이 와랑와랑 부땀구나.

“늦인덕 정하님아, 저건 어떤 냇이꽈?”

“부모 놓아 똥 자식 먼저 놓아 노난, 부모 가심에 불 부뜨는 냇이우다.”

애산에¹⁴³⁾ 불 부땀구나. 관관세¹⁴⁴⁾ ㄷ리도 넘어간다. 가단 보난 굴령에 진 물이 동산더레
찰랑찰랑 치데끼난,

“저건 어떤 냇이꽈?”

“저거는 부모 놓아동 자식 먼저, 먼저 나오난 건 물 거신 ㄷ리¹⁴⁵⁾ 똥네다.”

요 ㄷ리도 맞아져 가는구나. 청일산(靑日山)이 당허난 청일산을 넘어간다. 청수와당(靑水海)
을 넘어가젠 허난, 금봉체 ㄷ리 놓안 청수와당을 넘어간다. 백일산(白日山)이 당허였구나. 백
일산을 넘어간다. 백수와당(白水海)이 당헤연 금봉체 ㄷ리 놓안, 백수와당을 넘어간다. 건지산
이 잇구나. 머리 따왕 아기 베민 늬도 꿩기서랑¹⁴⁶⁾ 아닐 똥로구나. 건지 여꾼 건지산을 넘어
간다. 수삼철 리(遼三千里) 낙수와당이 당헤였구나. 가문 암쇄 지장(黍)밭¹⁴⁷⁾ 들어간다.

“아이고 아기씨 상전님, 수삼철 리 넘어가젠 허난, 넘어가지 못헤연 관디청 눈물이로나.”

서산베옥(瑞山白玉) ㄱ튼 양지, 주옹야방 연주지똥 비세 ㄱ치¹⁴⁸⁾ 올명, 올명 무정눈에¹⁴⁹⁾ 즈
을 자난, 요왕에 거북이가 선몽(現夢)을 시켰구나.

“상전님아, 나 상전님 집이 키우던 강아진데, 나 죽으난 바당더레 던지난 거북이 환싱(幻生)
헤였우다. 상전님아 흔저 일어납서. 나 등더레 돌아지민 수삼철 리 낙수와당을 넘어 안네쿠다
예~.”

일어난 보난 옆이 거북이가 잇엇구나. 거북이 등에 넘언 수삼철 리 낙수와당을 넘어엇구나.
백몰레왓¹⁵⁰⁾ 넘어간다. 늦인덕 정하님이,

“상전님아, 상전님아, 가문 암쇄 늬이 지장밭디 들엇우덴.”

허난,

“아이고 예펜년 본 말랑 본 디 버리라. 들은 말랑 든 디 버리라.”

후욕노욕(詬辱累辱)허였구나. 문이 당헤였구나. 문이 넘어가젠 허난 호탄치메 벗언 훌훌이
버련¹⁵¹⁾ 문에 인정 걸어두고, 늦인덕 정하님 여덜 폭 치메 입엇구나. 네 폭 씩 갈라 입언 황
금산(黃金山)더레 철쭉데 ㄱ똥 보명¹⁵²⁾ 조심조심 올라가는구나. 올라가 가난 황금산 주접선성
(朱子先生)님은,

“소사야, 소사야, 먼 올레 흔저 네어 걸라. 장삼도 네어 걸라. 송낙도 네어 걸라.”

먼 올레 데문더레 딱허게 걸엇구나. 황금산에 올라간 안네 들어간 절을 소곡 허난,

“후욕허고 노욕헐 똥 어떻허연디 나를 좃안 읍데가?”

나를 좃안 오랏거난 츠나록¹⁵³⁾ 세 동이 주멍,

142) ㄱ찌: 같이.

143) 애산에: 애달프게.

144) 관관세: 마르고 마른 띠.

145) 거신 ㄷ리: 거스른 다리.

146) 꿩기서랑: 보기 싫어.

147) 지장(黍)밭디: 기장 밭에.

148) 비세 ㄱ치: 비새(悲鳥)같이. 비새는 제비보다 조금 큰 새로 비가 올 때 잘 운다고 함.

149) 무정눈에: 무정하게 감기는 눈에.

150) 백몰레왓: 하얀 모래밭.

151) 버련: 찢어서.

152) ㄱ똥 보명: 흔적을 보면서.

“요결 강, 깡¹⁵⁴ 오랜 착쌀 엇이¹⁵⁵ 까렌.”

허난, 상전님 손으로 까젠 허난 손톱 아판 못 까고, 입으로 까가난 니빨 아판 못 까고, 비세 ㄱ치 울엇구나. 무정눈에 즘을 자난 하늘에 부영세, 땅 알에 도닥세, 알 땅에 노념세, 밧 땅에 시념세, 열두 복 호탄치메 베런 열두 문에 인정 걸언 놔두난 청나비, 백나비로 환싱헌 듯 동 입부위에¹⁵⁶ 다 앓았구나. 일어낭,

“주어 저 세.”

세덜은¹⁵⁷ 날아가멍 체는¹⁵⁸ 문딱¹⁵⁹ 날아갓구나. 착쌀 엇이 갓연 들어가난,

“공은 들엇구나. 쥐가 들어구나만은 중은 두갓¹⁶⁰ 출령 안 삽니다. 시왕 연주데 내려두고, 고분연줄에 내려두고 불도땅에 강 몸 갈릅센.”

헤엇구나.

“예~, 조상님네 시왕고분연줄더레 제느립네다~.”

불도땅에 내려구나. 원구월은 초오드레(初八日)가 당허난, 본맹두가 솟아나저. 알로¹⁶¹ 나젠 허난 아버지 못네 본 ㄱ못.¹⁶² 어머니 ㄴ단 좃갱이로¹⁶³ 나오랏구나. 본맹두도 원이자랑, 원이자랑. 신구월 여레드레(十八日) 당허난 신맹두가 솟아나저. 알로 나젠 허난 아버지 못네 본 ㄱ못, ㄴ단 좃갱인 큰성님 나오랏구나. 웬 좃갱이로¹⁶⁴ 나오난 신맹두도 원이자랑. 삼구월 스물오드레(二十八日) 당허난 살아살축 삼맹두가 솟아나젠 허난, 알로 나젠 허난 아버지 못네 본 ㄱ못, ㄴ단 좃갱인 설운 큰성님 나고, 웬 좃갱인 셋성님이 나고, 어머니 젓가슴 헤천 살아살 맹두가 솟아나니, 본맹두도 원이자랑, 신맹두도 원이자랑, 삼맹두도 원이자랑 이 아기덜 키왓구나.

훈 설, 두 설, 예시일곱 설이 당헤엇구나. 눈이나 티와보젠¹⁶⁵ 삼천서당에 보네젠 허난, 돈이 엇엇구나. 젓부기 삼형제 큰성님은 굴목에¹⁶⁶ 강 굴목지기로, 셋성님은 물지게 지영 물 지어 오고, 족은아신 훈장님 옆이 앓안 먹을 곱아간다. 넘어가멍 훈 자(字) 배웁곡,¹⁶⁷ 넘어오멍 훈 자 배웁곡, 붓도 엇고 종이도 엇이난 저녁에 올 떼민 굴목에 굼데로¹⁶⁸ 제를 흠팡 손바닥으로 딱딱 놀령 하늘천 따지 배완, 멘날 집이 온 건 보민 젓부기 삼형제 옷에 제만 부편 오난 이름은 젓부기 삼형제로 이름을 지왓구나예~.

이름을 지완 흐를날은 잇이난, 넘어가멍 들으난 서울상경 과거덜 본덴¹⁶⁹ 허난 집이 오란,

“어머님아, 어머님아, 삼천서당에 삼천선비, 일만선비 과거보레 간덴 험수다. 우리도 과거강 오쿠덴.”

153) 츠나록: 찰벼.

154) 깡: 까서.

155) 착쌀 엇이: 쪼개진 쌀알 없이.

156) 동 입부위에: 동이 전두리.

157) 세덜은: 새들은.

158) 체는: 겨는.

159) 문딱: 모두.

160) 두갓: 부부.

161) 알로: 아래로.

162) ㄱ못: 금 또는 흔적. 여기서는 여성의 성기를 의미함.

163) ㄴ단 좃갱이: 오른쪽 겨드랑이.

164) 웬 좃갱이로: 왼쪽 겨드랑이로.

165) 눈이나 티와보젠: 글을 깨우친다는 뜻 정도임.

166) 굴목에: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

167) 배웁곡: 배우고.

168) 굼데로: 부지깽이로.

169) 본덴: 본다고.

허난 ,

“아이고 나 아기덜 왕례노쇄(往來路需) 엇언 어떻행 가코? 아이고 나 아기덜.”

어멍 품삭헌¹⁷⁰⁾ 거 혼 냥 썩 주난, 서울상경더레 올라가는구나. 삼천선비, 일만선비

“젯부기 삼형제가 서울상경더레 올라가노렌.”

허난, 황금산(黃金山)이 신령이로구나. 데서님이 앞이 가는 선비덜 과거 낙방헤연, 뒤에 가는 젯부기 삼형제 과거급제 헬로구나.¹⁷¹⁾ 봄 비애기도¹⁷²⁾ 차 갓연 허젠 허민, 자우공논(左右公論)이 잇는 법이라. 삼천선비 일만선비덜이,

“우리가 젯부기 삼형젤 데령 가민, 과거를 못헬직허다.”

가단 보난, 베(梨)나무 베자수 집잇엇구나.

“우리 젯부기 삼형제 베낭¹⁷³⁾ 우터레 올려동 가게.”

젯부기 삼형제한티,

“느네덜 베낭 우에 강, 베 탕 오민 우리 왕례노섭 보테주켤.”

허난,

“기영 험서.”

삼천선비덜 굽은 디 굽어, 굽은 디 굽엉 젯부기 삼형제 베낭 우터레 올려두언 서울상경더레 올라가는구나예~.

삼천선비 서울상경 올라가명 동문도 잡앗구나. 서문도 잡앗구나. 남문도 잡앗구나. 붓전에 다 거두와 간다. 종이전에 먹전에 돈딱 거두불엇구나.

젯부기 삼형제는 높은 낭에 올라가난, 올라가도 못허고 내려오도 못헤엇구나. 깊은 밤이 뉘니 황금산이 영급 신령으로 청룡(靑龍), 황룡(黃龍)이 얼켜진 듯 틀어진 듯 저서 꿈에 선몽(現夢)이 뉘엇구나. 일어나난 꿈이라. 나오란 보난 무지력 실총각덜이¹⁷⁴⁾ 높은 낭에 올랐구나.

“구신이냐? 생인이냐? 구신(鬼神)이건 옥항더레 올르고 생인(生人)이건 내려오렌.”

허난,

“우리덜은 젯부기 삼형제입네다. 삼천선비 꺾에¹⁷⁵⁾ 이 나무에 올라오란, 올라가도 내려가도 못헤염수다.”

“아이고 설운 애기덜아, 바지 다님을¹⁷⁶⁾ 클르라.”

바지 다님을 클르난, 베가 와르랑허게 알더레 떨어지엇구나. 사다리 놓안,

“흔저¹⁷⁷⁾ 내려오렌.”

허연 내려오난,

“나 아기덜 중간에 들언 고생헤엇구나. 흔저 서울상경더레 올라가라예~.”

서울상경더레 올라간다. 동문, 서문, 남문 다 잡아불엇구나. 가단 보난 청만주에미가¹⁷⁸⁾ 느다 들러 웨어, 웨어 들러 느다 질을 갈라가난 필아곡절(必有曲折)허다. 청비게, 백비게, 어러비게¹⁷⁹⁾ 법은 마련헤여 두고, 강 보난 풋죽할망집이¹⁸⁰⁾ 잇엇구나. 들어간 풋죽 흔 사발씩 사

170) 품삭헌: 품삯을.

171) 헬로구나: 할 것이구나.

172) 비애기도: 병아리도.

173) 베낭: 배나무.

174) 무지력 실총각덜이: 무지렁이총각들이. 머리를 풀어헤친 총각을 얹잡아 부르는 말.

175) 꺾에: 꺾에.

176) 다님을: 대님을.

177) 흔저: 어서.

178) 청만주에미가: 푸른 뱀이.

179) 청비게 백비게 어러비게: 시왕맛이 할 때 긴 천을 이용하여 제장의 천장 등에 여러 방향으로 감고

먹언 이 말, 저 말 할망이영 말 골단 해는 다 지난 젓부기 삼형제 시왕 청버들낭¹⁸¹⁾ 알에 오란 헤트랭이 걸리지었구나.¹⁸²⁾

그날 저녁에 황금산(黃金山)이 신령으로 선몽(現夢)을 헤엿구나.

“어저께 오라난 애기덜 아침이 오랏걸랑 풋죽 썬뽕 뽕그랭이¹⁸³⁾ 맥이고, 종이전에, 붓전에, 먹전에 강 다 구해다 주언, 그 애기덜 쓴 글을 웨손지 상세관에 들어갈 때랑 상세관 무릅팍 알더레 놔주렌.”

꿈에 선몽(現夢)이 뒤엇구나. 일어난 보난 꿈이로구나. 호꿈 잇이난 젓부기 삼형제가 오랏구나. 풋죽 썬뽕 뽕그랭이 맥연 종이영, 붓이영, 먹이영 네여 주난 큰성님은 천지혼합 천도천왕, 셋성님은 천지계벽 지도지왕, 족은아신 제청도업 인도인왕. 천지인 곱을¹⁸⁴⁾ 갈랏구나. 그거를 써 주난 웨손진 물을 지언 상시관에 들어간 상시관 무릅팍 알더레 놓앗구나. 삼천선비, 일만선비 과거를 보앗구나. 과거를 보아동 과거 줄 선비는 아니 오랏구나. 상시관 무릅팍 알더레 베레보난,

“천하 명필이여, 이거는 누가 썼느냐?”

서로가 보멍 트렌트렌허난,¹⁸⁵⁾

“이거 쓴 사름 데령오민 느네덜 과거 주켤.”

허난, 삼천선비, 일만선비 곤는 말이,

“요거는 젓부기 삼형제 쓴 글이 맞다.”

젓부기 삼형제 훗단 보난, 시왕 청버들낭 알에 헤트랭이 걸리지었구나.

“니네덜 상시관에서 오렌 햄저.”

가난,

“이거는 너네가 쓴 글이냐?”

“우리가 쓴 글입네다.”

훈번 써보렌 허난, 발가락에 꼽안 이레 활락, 저레 활락 허난,

“기특헌 선비로구나. 이만허민 과거 줄만허다.”

큰성님은 문선급제(文選及第), 셋성님은 장원급제(壯元及第), 족은아덜은 팔도도자원(八道都壯元)으로 급제를 주엇구나.

“어떻허난 양반이 애기덜은 중이 아니 주고, 애기, 중이 애기덜은 과거를 줘네까?”

“어떻헤연 중이 아기덜인줄 알겠느냐?”

“베옥상을 출려 줘서. 알아볼 도리 잇습네덴.”

허난, 베옥상을 출려 주난 이것, 저것 다 먹어도 술허고, 도세기 귀긴¹⁸⁶⁾ 아니 먹언, 상 알더레 놓앗구나.

그 법으로 우리 심방덜은 그떼에 과거를 못 받으난 큰곳을 가나, 족은곳을 가나, 문전철갈이¹⁸⁷⁾ 가민 책상 7치 앞이 공깃상 받으는 법입네다.

연결하는 장식.

180) 풋죽할망집이: 팔죽할머니 집에.

181) 청버들낭: 버드나무.

182) 헤트랭이 걸리지었구나: 벌러덩 누웠구나.

183) 뽕그랭이: 배불리.

184) 곱을: 경계를.

185) 트렌트렌허난: 이해할 수 없어 의아해 하는데.

186) 도세기 귀긴: 돼지고기는.

187) 문전철갈이: 철강이는 계절제(季節祭)로 ‘뱃칠성’이라고 부르는 사신(蛇神)을 모시고 있는 집에서 부(富)를 기원하며 행해짐.

과거 낙방이 됐었구나. 연주문(延秋門) 맞히민 과거를 주켤 허난, 삼천선비, 일만선비 연주문을 맞히지 못했었구나.

“우리덜 한번 기술이나 부러보쿠다.”

“어서 기영 허렌.”

허난, 큰성님은 우이 맞히고, 셋성님은 알에 맞히고, 족은아시 초동 전동(靑銅) 7튼 풀따지¹⁸⁸⁾ 걸어간다. 봉에 눈을¹⁸⁹⁾ 부릅뜬다. 화살데를 딱 노난 연주문이 와실랑허게 씨어지었구나.¹⁹⁰⁾

“이만헤여도 중이 아기덜 과거 줄만 허다.”

큰성님은 문선급제(文選及第), 셋성님은 장원급제(壯元及第), 족은아신 팔도도자원(八道都壯元)이로구나. 청일산도 네여 논다. 흑일산도 네여 논다. 어수예(御史花), 비수예, 삼만관속(三萬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피리단절, 옥단절, 비비동당 과거헤여근 네령 오라간다.

삼천선비, 일만선비덜은 집이 먼저 내려오랏구나. 노가단풍즈지멩왕아기씨 궁에 아덜 삼형제 너무 벌란허게¹⁹¹⁾ 날덴 헤여, 물멩지 전데(纏帶)로 목을 걸러단 지핀 궁은 야튼 궁, 삼천전제석궁에 가두왓구나. 늦인덕 정하남아 출병막(出兵幕)을 출렸구나. 물멩지 단속옷 하나 출병막을 놓아 멘드라두고 품펜지를 주멍,

“너네 상전덜 저 과거 돌려동 오민 너네 종반역¹⁹²⁾ 시겨주켤.”

허난,

“어서 기영 협서.”

머리 풀언 산디지께기로¹⁹³⁾ 머리 무끄고 치메 저구리 입어건 어주예, 삼녹거리에, 서강베포 땅에 가얏구나. 젓부기 삼형제도 과거헤연 어주예, 삼녹거리, 서강베포 땅에서 만나난,

“아이고 상전님네 과거렌 허는 말이 뭇 말이파? 큰상전님은 그제켤 날 죽언, 어제켤 날 출병막을 출런, 오늘 품펜지 갖영 오랏우덴.”

허난,

“어멍, 어멍, 우리 어멍, 아방 엇인 우리덜 키와건, 아이고 어멍 엇인 이가 걸리믄 무얼 허리?”

청일산도 보네여 간다. 어수예, 비수예, 삼만관속, 육방하인, 피리단절, 옥단절, 행금,¹⁹⁴⁾ 주테 모두 돌려두고 아방 엇인 우리 킵젠 허난 존심 밋음 먹었구나. 동더레 벌은 머구냥¹⁹⁵⁾ 끊어간다. 행건 벗언 우 튼¹⁹⁶⁾ 두건 씨고, 두루막 벗언 옷독지에¹⁹⁷⁾ 걸려 메연, 품펜지 콤에 콤고,

“어덜가코?¹⁹⁸⁾ 어덜가코?”

웨진 땅을 좇안 가난, 임정국 데감, 짐진국 부인님 가마문을 아니 열어주었구나. 베석(拜席)

188) 풀따지: 팔뚝.

189) 봉에 눈을: 봉황새처럼 동그랗게 부릅뜬 눈을.

190) 씨어지었구나: 쓰러졌구나.

191) 벌란허게: 요란하게.

192) 종반역: 종의 신분을 벗김.

193) 산디지께기로: 발뽀질.

194) 행금: 거문고. 거문고는 삼국사기에 거문고는 중국 진(晉)나라의 칠현금(七絃琴)을 고구려의 왕산악(王山岳)이 개조하여 만든 악기인데 이를 연주하자 검은 학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 그래서 이름을 현학금(玄鶴琴)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현학금(玄鶴琴)을 줄여 현금(玄琴)이라고도 한다.

195) 머구냥: 머귀나무.

196) 우 튼: 위가 트인.

197) 옷독지에: 어깨에.

198) 어덜가코: 어디로 갈까.

자리 네여 낱, 이걸 낱아¹⁹⁹⁾ 놓안 절을 허렌 허난 절을 헤엿구나.

“아이고 나 아기덜, 나 아기덜, 느네 어멍 좃일컬랑²⁰⁰⁾ 느네 아방 좃앙 가라.”

“우리 아방은 누게꽂?”

“느네 아방은 황금산(黃金山) 주접선생(朱子先生)이여. 황금산에 느네 아방 좃앙 가렌.”

허난, 나오젠 허난,

“나 아기덜, 이거 갖영 가라.”

베석자리 네여 주난, 신자리 법 마련허고 황금산더레 올라가단 보난, 너사무너도령 삼형제가 비세 7치²⁰¹⁾ 울엄구나.

“느넨 무사 이디²⁰²⁾ 앓안²⁰³⁾ 울엄시니?”

“우리는 아무도 엇영²⁰⁴⁾ 우리벳기²⁰⁵⁾ 삼형제벳기 엇우다.”

“아이고 우리영 7튼 팔저(八字)로구나. 요레²⁰⁶⁾ 오라. 요레 오라.”

어머니 출벳막 출린 건 물멩지 단속웃 갖영 온 거로 7단 굴로 들어간 웬 굴로 나오랏구나. 웬 굴로 들어간 7단 굴로 나오랏구나. 육형쩨 무언,

“느네덜 여기 잇이렌.”

헤여 두언, 황금산(黃金山)더레 올라가단 보난 청만주애미가 따시²⁰⁷⁾ 7다 들어 웨우, 웨우 들러 7다 길을 갈라가난 초걸레, 이걸레, 삼걸레 법 마련허고 황금산에 간 절을 소곡허난,

“난 양반애기 둔 도레(道理) 엇덴.”

허난,

“어평허민 아방애기 뉘 수가 잇입네까?”

“데공단²⁰⁸⁾ 머리 삭발(削髮)허렌.”

허난, 젓부기 삼형제 초전싱에 그리쳐간다. 양반 풀안 무반 삼아, 데공단 머리 삭발헤엿구나. 하늘 굴룬 굴송낙, 지에 굴은 굴장삼, 아강베포, 직부잘리, 가사(袈裟). 송낙(松絡). 썬 절을 허난,

“나 아덜이 적실허다. 설운 나 아기덜 어멍 좃이컬랑 심방질 허렌.”

허난,

“쉐를²⁰⁹⁾ 잡은 들 못힘네까? 어멍만 좃인덴 허민 심방질 허쿠덴.”

허난,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곳을 도올란 물사오기,²¹⁰⁾ 세사오기,²¹¹⁾ 툇라다근²¹²⁾ 첫째 북은 툇라단 아버지 절간 법당 북을 설련허고, 이제 북을 툇라단 울랑국을 설련허고, 셋째 북은 툇라단 삼동막이 설운 장계, 요섯 부체, 열두 가막쉐, 든 변, 난 변 제왓구나.

백몰레왓디 네렸구나. 옥항에 전면녹이 네렸구나. 아끈 도간, 한 도간,²¹³⁾ 아끈 지기, 한 지

199) 낱아: 낱아서.

200) 좃일컬랑: 좃을 것이면.

201) 비세 7치: ‘비세’는 제비새를 줄임말 ‘제비새가 울듯이’ 정도의 뜻임.

202) 이디: 여기.

203) 앓안: 앉아서.

204) 엇영: 없어서.

205) 우리벳기: 우리밖에.

206) 요레: 이쪽으로.

207) 따시: 다시.

208) 데공단: 중의 머리를 깎는 칼.

209) 쉼: 쇠를 무구를 뜻함.

210) 물사오기: 벳나무의 일종.

211) 세사오기: 벳나무의 일종.

212) 툇라다근: 툇어다가.

기, 아끈 물망, 한 물망, 동이 와당 췌철이²¹⁴) 아덜 불러다가 남상잔에 객(刻)을 세겨간다. 하늘보명 오랏구나. 하늘 천(天) 자(字) 네여 준다. 땅으로 걸으멍 오랏구나. 따 지(地) 께(字) 네여 준다. 물으멍, 물으멍 오랏구나. 물음 문(問) 자(字) 남천문 객(刻)을 세겨구나.

“설운 나 아기덜, 서울상시관에 가난 무시 것이 좋아니?”

허니, 큰아덜은,

“베옥상이 좋읍데다.”

“초감제²¹⁵) 상 받아보라, 그거보단 더 좋아지라. 셋아덜은 뭇이 좋아니?”

“베옥상이 좋아도 어수에(御賜花), 비수에 좋읍데다.”

“닐라근²¹⁶) 초신맛이²¹⁷) 헤여 보라. 그거보다 더 좋아지다. 족은아시 뭇이 좋으네?”

“나는 삼만관속(三萬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피리단절, 옥단절, 행금,²¹⁸) 주테 소리가 좋읍데다.”

“설운 나 아기가, 닐라근에 ㄴ 단 어깨라근 신소미,²¹⁹) 웬 어깨랑 금제비청²²⁰) 거느리영 흥포관디(紅袍冠帶), 조심데, 혈우레비 허튼짓²²¹) 금정금납 거느리영 시왕데를²²²) 지퍼보라. 그거보다 더 좋아지라.”

초체 올려 초공하늘, 이제 올려 이공하늘, 삼체 올려 삼공하늘, 옥항 서른세 하늘에 져부기 삼형제, 어멍 좃이는 곳을 헤엿구나. 아이고 져부기 삼형제 곳을 허니 깊은 궁에 가두난 야픈 궁에 네올린다. 야픈 궁에 가두난 어머니 엄똥²²³) 허난 어머니 살앗구나예~.

“어머니 좃젠 우리 양반 풀안 심방질 헤엿우다. 읍서. 가게.”

어서 내려간다.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 땅에 네렸구나. 유저생인 질, 팽저생인 질에 네렸구나. 유저남은 비어단 마흔여덟(四十八) 초간주를 설련허고, 팽저남은 비어단 마흔으덟, 서른으덟(三十八) 이간주를 설련허고, 신평낭을 비어단 스물으덟(二十八) 하간주를 설련허고, 브름이 부난 브름 뜨벽 막고 뜻뜨난 뜻 뜨벽을 막고, 동산세별 신년상간주 연양당주 육고비 동심절을 믈져 놓앗구나. 마흔으덟 모람장, 서른으덟 백골장, 스물으덟 고무살장, 솥솥들이²²⁴) 좃아²²⁵) 빗져두고,²²⁶)

“어머니, 이승 삼하늘 초지협서. 우린 저싱 삼시왕더레 가쿠다. 져부기 삼형제 데령 잇이민 좃앙 올 즈순 잇우덴.”

헤연, 삼시왕더레 올라가젠 헤연 양반이 원수 값음허저. 양반이 잡으레 오는 칼은 으든닷(八十五) 돈 칼이로구나. 중이 잡으레 오는 칼은 일흔닷(七十五) 돈 칼이로구나. 하인 잡으레 오

213) 아끈 도간 한 도간: 작은 도가니와 큰 도가니.

214) 췌철이: 무쇠장이.

215) 초감제: 곳을 시작하여 처음에 하는 청신제차(請神祭次).

216) 닐라근: 너는.

217) 초신맛이: 초감제에 이어 하는 청신제차(請神祭次).

218) 행금: 거문고. 거문고는 삼국사기에 거문고는 중국 진(晉)나라의 칠현금(七絃琴)을 고구려의 왕산악(王山岳)이 개조하여 만든 악기인데 이를 연주하자 검은 학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 그래서 이름을 현학금(玄鶴琴)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현학금(玄鶴琴)을 줄여 현금(玄琴)이라고도 한다.

219) 신소미: 소무(小巫).

220) 금제비청: 악사들.

221) 흥포관디(紅袍冠帶) 조심띠 혈우레비 허튼짓: 무복(巫服) 차림.

222) 시왕데를: 시왕맛이를 뜻함 시왕맛이는 시왕을 청하여 기원하는 제차(祭次).

223) 엄똥: 언똥.

224) 솥솥들이: 솥들이.

225) 좃아: 여기서는 '오려서'의 뜻으로 쓰임.

226) 빗져두고: 붙여두고.

는 칼은 서른닷(三十五) 돈 칼이로구나. 팔저 곳인 형제간 잡으레 오는 칼은 혼 닷(五) 돈 칼이로구나. 시왕데번지²²⁷⁾ 설련허고 옥하설은 가단 보난에 유정싱(柳政丞)뜨님아기 싱근 돌에, 몰팡돌에 노렘놀이험구나.

“요거 양반이 풀이여, 어떻 원수 갚음허코?”

아버지한티 강 굴은난 육간제비를²²⁸⁾ 네여 준다. 파랑공에 쓴 오란 유정싱뜨님아기 콤더레 노난, 그걸 갖영 놀당, 밤엔 몰팡돌에 놓아동 가고, 아침인 오민 요걸 갖연 노는 게, 신에 신 병이 낫구나. 열일곱은 나난 눈 어둡고, 스물일곱 나난 눈 뜨고, 서른일곱 나난에 눈 뜨고, 마흔일곱 나난 눈 어둡고, 쉰일곱 나난에 눈 어둡고, 예순일곱 나난 눈 떴구나. ㅎ²²⁹⁾ 정신이나 출려보저. 알엿넉더레 네리단 보난 즈북장제 집이 단똥애기 열두 메 무껏구나. 간,

“아이고 팔저 곳인 아이 덩검수다.”

“아이고 팔저고, 스주고 우리 애기 열두 메 무껏구나.”

“영 해봅서. 혼번 진맥(診脈)이나 지퍼보게.”

진맥은 지편 보난, 속맥은 살고 겉맥만 죽엇구나.

“이 아기 시왕법 안네 잡헛우다. 백지알 데김 누릅센.”

헤연 문전더레 상 혼 상 놓안 7른 말은 엇이난, 면산더레 보난 공신이 내려오난,

“공시웨다. 가세웨다.”

이 말을 굴안 초고비, 이고비, 삼고비, 사고비, 오고비, 육고비²³⁰⁾ 꺼썬 나오명 곤는 말이,

“나나 가불민, 이 아기 쇼한 게끔,²³¹⁾ 한 게끔 물언 일어날 꺼우다. 경 허건 굿허컬랑 남천 문밭 유정싱뜨님아기 좃앙 읍서예~.”

나오라불엇구나. 유정싱뜨님아기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 땅에 두루쟁이도 아니고, 미치쟁이도 아니고, 덩검시난 알엿넉 즈북장제 집에서,

“우리 집이 왕, 십 년 전에 소지 꺼꺼난 굿헤여 줍서.”

“이런 시왕법 안네 잡헛구나. 백보 베끗디 옆덴 건 누게가 뉘겿느냐?”

유정싱뜨님아기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 땅에 덩검시난 알엿넉 즈북장제 집이서,

“십 년 전에 우리 집이 오란 백지알 데김 눌린 소지 꺼끄난 오랑 굿헤여 줍서.”

깜짝허게 놀리난,

“시왕법 안네 잡헛구나. 먼 정에 옆덴 건 누게가 뉘겿느냐?”

“남천문밭 유정싱뜨님아기네다.”

“부정도 가이라. 서정도 가이라.”

부정을 가엇구나.

“물멩지 전데에 목을 걸려 올리라.”

물멩지 전데에 목을 걸려 올렸구나.

“꼬까막 은저울데 저우리라.”

꼬까막 은저울데 저우리난, 백 근이 아니 차앗구나.

“무당서(巫堂書)를 네여 주라.”

무당서를 네여 주난, 신전 집에 강 통설(通書^ㄹ)헤연 오란, 유정싱뜨님아기 신당 집이 간 무

227) 시왕데번지: 멩두의 하나인 ‘신칼’을 뜻함.

228) 육간제비를: 엽전 모양의 무구.

229) ㅎ: 조금.

230) 육고비: 젓부기 삼형제와 너사무너도령 삼형제가 의형제를 서로 결연하였음을 상징하는 종이 무구로 당주에 걸어둬.

231) 게끔: 거품.

당서를 통설해연 오난 따시 었데엿구나. 꼬까막 은저올데 저우리난 백 근 차앗구나.

“어인테인(御印打印)²³² 네어주라. 수리감봉 막음을 주라.”

아방 주던 계천문, 어인테인 놀려간다. 어멍 주던 모옥상잔으로 어인테인 ,수리감봉 막음을 주엇구나.

“약밥약술²³³ 네어주라.”

약밥약술을 네어주언 먹엇구나.

“연반물 치메 저구리 네어주라. 코집이 보선도²³⁴ 네어주라. 남수와시(藍水禾紬) 적퀘지(赤快子)도 네어주라. 이명걸이²³⁵ 네어주라. 퀘지띠 네어주라. 흥포관디(紅袍冠帶) 조심띠를²³⁶ 네어주라. 아방 주던 계천문(開天門), 어멍 주던 모옥상잔, 시왕데번지,²³⁷ 하늘 옥황(玉皇) 도성문 열려옴던 금정옥술발 천왕낙뻬²³⁸ 네어 주라. 삼천기덕(三千器德), 일만지계(一萬祭器),²³⁹ 멩두멩철 네어주라.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름준치도 네어주라. 고리동반,²⁴⁰ 안동반 네어주라. 영기(令旗), 몸기 네어주라. 초공 신줄, 이공 연줄. ㄴ단 어깨 웨우, 웬 어깨 ㄴ단, 어깨로 감아맛엇구나. 에기마후를 불러라.”

“니나난니난니요. 니나난니난니요.”

금제비청²⁴¹ 거느리영, 알엿녜에 간 즈북장젿 집이 강 큰굿 전세남²⁴² 헤영 오란 삼시왕에 종명(終命)을 네엇습네다.

유정싱떡님아기 놓은 연줄로 이 전싱을 그리치난 제주큰굿 십삼 호²⁴³가 탄생헤엇습네다.

초공본풀이>일부 혼잔

독주전에²⁴⁴ 게랄안주(鷄卵按酒) 일부(一杯) 혼 잔(盞) 받읍서. 천하(天下) 임정국 데감, 지에(地下) 짐진국 부인 <그냥 그레 놉불라.> 일부 혼 잔 받읍서. 황금산(黃金山) 주점선성(朱子先生)님 일부 혼 잔 받읍서. 이 산 압은 발이 받고 저 산 압은 줄이 번어 왕데 월산 금하늘 노가단풍즈지멩왕아기씨 일부 혼 잔 받읍서. 젿부기 삼형제도 일부 혼 잔 받읍서. 유정싱떡님아기 일부 혼 잔 받읍서. 고엿선성님 일부 혼 잔 받읍서. 당주하르바님, 당주할마님, 당주아방, 당주어멍, 당주도령, 당주아미, 당주벨감님 일부 혼 잔 받읍서. 마흔으듭 초간주, 서른으듭 이간주, 스물으듭 하간주도 일부 혼 잔 받읍서. 직부일월상세경도 일부 혼 잔 받읍서. 당주일월, 몸주일월, 신영간주일월 일부 혼 잔 받읍서.

큰굿 사무실에 몸 받은 선성님 공철이 아지방, 장구삼춘 데진이 오라바님도 일부 혼 잔 받읍서. 신이 성방 몸 받은 조상도 어머니님 일부 혼 잔 받읍서. 큰굿 휘월덜이우다.²⁴⁵ 오씨로,

232) 어인테인(御印打印): 신굿에서 무조신이 심방의 입무를 허가하는 의미에서 멩두로 찍는 도장.

233) 약밥약술: 약밥과 약주. 신굿에서 심방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신이 내리는 음식과 술.

234) 보선도: 버선도.

235) 이명걸이: 여자 심방이 머리에 두르는 띠.

236) 조심띠를: 흥포관디를 입고 가슴에 두르는 띠를.

237) 시왕데번지: 멩두의 하나인 ‘신칼’을 달리 이르는 말.

238) 금정옥술발 천왕낙뻬: 무구의 하나인 요령을 부르는 명칭.

239) 삼천기덕(三千器德) 일만지계(一萬祭器): 무구(巫具)를 일컬을 때 쓰는 상투적인 표현.

240) 고리동반: 방석 역할을 하는 ‘병개떡’과 방울 모양의 ‘방울떡’으로 이루어지 떡.

241) 금제비청: 제주도 무악기(巫樂器)인 연물을 치는 소무(小巫)들.

242) 전세남: 병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굿.

243) 제주큰굿 십삼 호: 제주큰굿보존회.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큰굿을 두이레인 열나흘 동안 이어지는 큰 굿으로 우리나라 굿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음.

244) 독주전: ‘독주점’인 듯. 닭다리 혹은 닭고기.

245) 휘월덜이우다: 회원들입니다.

이씨로 네워간 몸받은 조상 일부 훈 잔 받으셔. 이씨 성님 몸 받은 조상 일부 훈 잔 받으셔. 김씨 성님 몸 받은 조상 일부 훈 잔 받으셔. 이씨 동생 몸 받은 조상 일부 훈 잔 받으셔. 오씨 성님 몸 받은 조상 일부 훈 잔 받으셔. 김씨 조계 몸 받은 조상 일부 훈 잔 받으셔. 송씨 조계 몸 받은 조상, 고씨 성님 행원질로 일부 훈 잔 받으셔.

천문선성 덕환이, 상잔선성 녀신이, 요량선성 흥글저데, 신칼선성 시왕데번지 일부 훈 잔 받으셔. 북선성 조막손이, 장구선성 명절광데, 데양선성 와랭이, 설췌선성 느저왕 나저왕 일부 훈 잔 받으셔. 천부답은 문서왕, 고리동벽, 안동벽에 놀던 선성님이 놀메선성 놀문이, 기메선성 기문이, 당반선성 아완신, 떡선성 에에기, 밥선성 제에기, 술선성은 이테백이, 자리비선성 무정계, 향불선성 수도령, 큰굿 전훼원 몸 받은 선성님 일부 훈 잔 협셔. 산이 멩두 천두천황, 죽어 멩두 부두데천명 놀던 선생님 일부 훈 잔 협셔.

초공본풀이>비념

일부 훈 잔 헤여건 조상님에서 이 큰굿 훼원덜 먹을연, 입을연 네세웁셔. 큰행사, 족은행사 전세남²⁴⁶⁾ 육마을 네세웁셔. 전수생덜 이 사무실에서 오란 연습혈 때 앞이멍에 너덧 이견,²⁴⁷⁾ 듯이멍에 빠른 이견 네와 줍셔. 말명드리, 쟈드리 네와 줍셔. 고운 춤 네와 줍셔. 북이여. 장귀여. 데양이여. 설췌영 잘 뚜들게 협셔. 세드림²⁴⁸⁾ 잘 나게 협셔. 추물공연²⁴⁹⁾ 잘 허게 협셔. 나산 석시도²⁵⁰⁾ 놀게 협셔. 나산²⁵¹⁾ 열두 본풀이도 허게 헤여 줍셔. 조상님에서 이 즈순덜 이디 녹음헤연 가는 즈순, 시리에 잡히게 허지말고, 녹음헤연 가건들랑 녹음은 잘 보존되게 헤여주고,

초공본풀이>주잔념김

조상님네 받다 씨다²⁵²⁾ 남은 건, 시군문 연드리, 어시력이 멩두, 더시력이 멩두, 원살축 신살축, 당주스룩 몸스룩, 신양간주스룩 불러주던 멩두발덜. 입춘굿 허레 덩길 때, 훼원상생(解冤上生)굿 허레 덩길 때, 일본 데마도 바당 훼원상생굿 허레 강 올 적에, 큰전시에, 족은전시에 덩길 적에 뜨라들던 안체포에, 전뎃기에, 차뎃기에 뜨라들던 멩두발덜. 사라봉 이 안네 노는 조상, 이 배꿋디 노는 조상, 큰낭지기, 큰돌지기, 영덕지기, 동설룡, 서설룡, 남설룡, 북설룡, 거부용신 데용신 노는 이런 임신덜까지 많이 열두 소잔입니다. 계잔계수헤연 올립니다~. 상당불법은 초초 이초 불법전더레 도올립니다.

246) 전세남: 병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굿.

247) 이견: 의견.

248) 세드림: 굿의 청신제차 중에 사기(邪氣)를 쫓아내는 제차를 말한다.

249) 추물공연: 제청 안으로 모셔 들인 신들에게 준비한 온갖 정성과 차린 제물을 받아 흠향하기를 청하는 의례이다.

250) 석시도: 석살림도 신을 청해 모신 뒤에 흥겹게 놀려 신명을 살려내는 제차이다.

251) 나산: 나서서.

252) 씨다: 쓰다.